

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http://www.mke.go.kr
'11년 5월 1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안종일 신산업표준과장, 송주영 연구관(509-7296)	

전통의학 국제표준, 한(韓)의학이 주도

- 전통 의료기기, 의료정보 2개분야 국제표준제정 의장 수입 -

□ 급신장되고 있는 전통의학 관련 국제표준화기구(ISO) 기술위원회 TC249(잠정명칭:중의학)총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, 중, 일 등 15개국 70여명의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되었으며, 우리나라는 주요핵심인 전통의료기기, 의료정보 2개 분야 국제표준제정을 총괄할 의장국 수입과 2012년도 총회 유치가 지난주에 확정되었다고 기술표준원(허경 원장)은 발표하였다.

* 전통의학의 정의 및 시장동향

- 전통의학 이란 :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의 예방·진단과 치료 뿐아니라 건강유지에 사용되는 상이한 문화에 토착된 이론, 경험에 근거한 지식과 기술에 의한 시술행위 총체를 뜻함 (WHO의 TM(Traditional Medicine) 정의)
- 시장동향 : 전통의학은 한국의 한의학(韓醫學)과 중국의 중의학(中醫學), 일본의 한방의학(韓方醫學, Kampoe)주도로 세계시장 규모 2천450억('06년)달러로 빠른 성장세(년간 7.4%)를 보이고 있어 시장선점을 위하여 자국의 전통 의학을 국제표준으로 삼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(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'한의학 기술 및 정책동향(2010)')

- (의료정보) WHO 전통의학 표준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04년부터 2009년간 한·중·일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경험과 「의료정보분야 표준개발 방향」을 제시함으로써 ISO 표준제정 의장국으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.

* 의료정보분야 : 질병명 분류, 진료지침, 치료행위, 경락위치, 약물분류 등에 사용되는 진료행위의 지침서.

- (의료기기) 전통의료기기 국제표준개발 과정과 「의료기기 국제표준 개발 비전」 발표에 회원국들의 큰 지지를 받았음

- 또한,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“일회용 멸균 호침”은 품질과 안전성 (세포독성, 급성독성, 멸균 등)이 확보된 한국산업표준(KS)을 제안

* 전통의료기기분야 : 진단을 위한 맥진 및 경락 진단기와 치료목적인 침, 뜸, 부황, 의료용 부속 장비 등

⇒ 의장의 역할은 제안된 국제표준(안) 내용 수정·보완을 위한 회의 주제 등 실무 작업반의 모든 운영이나 활동을 주도함

- 또한, 2012년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우리나라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제표준 선점에 더욱 유리한 계기가 마련되었음

□ 전통의학시장의 급팽창은 초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의료비 지출급증과 신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만성·난치성 질환이 확산되고 있어 그 대안으로 다효능·저비용 치료방식인 전통의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
- 이에따라, 정부는 신설 기술위원회(IC)에서 국제표준 선점이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기업, 한국한의학연구원, 대한한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한의학 중장기 국제표준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지원 할 계획임

[참고]

□ 전통의학 의료기기 종류

일회용 멸균 호침



이침



뜸



부황



전침기



레이저 치료기



맥진기



□ 네덜란드 국제표준화 총회 참가규모

○ TC249 회원 P-member(14국 참석/22개국 중), O-member(1국 참석/9개국 중), WHO(1인), ISO CS (1인), ISO/TC215(1인), WFCMS(1인), WFAS(1인) 총 15개국 71명 참석.

*P-member : 한국, 중국, 일본, 미국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독일, 네덜란드,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핀란드, 노르웨이, 타일랜드

*O-member: 홍콩

※ ISO/TC249 회원국 현황

- 31개국(P회원 : 21/ O회원 : 10)

정회원(P)	한국, 중국, 일본, 미국, 독일, 네덜란드, 호주, 캐나다, 프랑스, 가나, 인도, 이스라엘, 몽골, 노르웨이, 남아프리카, 스페인, 태국, 튀니지, 베트남, 오스트리아, 핀란드
준회원(O)	브라질, 이탈리아, 리투아니아, 뉴질랜드, 폴란드, 싱가포르, 스웨덴, 스위스, 영국, 바베이도스